

바이든대통령과 대한민국안보

최명상 (예 준장, 공사 16기, 전공군대학총장, 명지대 교수)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Joe Biden)은 전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적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을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전 중부군사령관을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세계질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노병의 애국충정으로 당면과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한국과 미국이 2014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②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③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해서 창설된 유럽지역의 NATO군 사령관은 초대 아이젠하워 장관 이래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6개국이 그들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며 아직도 미군사령관에게 맡기고 있던 말인가?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빼앗겼던 군사주권 환수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핵 위협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미국의 핵우산에 맡기고 있는 처지에서 무모한 자존심의 과욕이다. 국제정치학의 대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핵무기를 가진 적(敵)에게는 핵무기로 대처하던지 아니면 굴종(屈從) 뿐이라고 했다.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평가를 왜곡해선 안 된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2014년 합의 때보다 더 악화됐고 아직 대응 능력도 미흡한데 임기 내 성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또한 전환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한국군의 북핵 대응능력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이뤄져야 한다.

둘째, 한미정상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안보위기인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수단 마련하여야 한다. 트럼프는 25년간 역대정부가 끌어온 북핵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고 하며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허사로 끝났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북한의 통일선전전략과 기만전술에 속아 사진 찍기용 쇼(show)만 연출했을 뿐 오히려

핵위협은 더 커졌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띄워주고 세습공산독재체제를 보장해주었지만 중국 시진핑과 밀당으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블링컨도 최악의 폭군이라고 했다. 그는 고모부 장성택을 총살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살인자며 독재자고 폭력배다.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한 공포정치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 폭력배는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 UN안보리 결의와 경제적 제재 보다 강력한 억제전략과 압박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은 성과가 없었다.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미연합 북핵 선제타격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야 한다. 비공개인 NCND로 샤프드(THAAD) 추가배치, 미 전략자산(F-22) 한반도 전개, 최신 지하 관통형 전술핵(B61) 배치, 중단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여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8일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발표했다. 억지주장에 망하는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체제불안에 인민선동용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가 경고광동을 못하도록 정권교체나 참수계획까지 극비리 추진되어야 한다. 외교적 대화와 군사적 압박의 2중 협상전략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끄떡없이 응하도록 겁박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 하지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로마 장군 베지티우스(Flavius Vegetius)의 격언처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은 힘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미정상은 한반도 전쟁억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번영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한미동맹 관계를 이번기회에 사활적(死活的) 국익관계로 격상하여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종전선언 추진 등의 이견으로 한미관계가 순탄치 않다. 안보 책임자들은 말로만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한미동맹체제 강화와 안보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는 미국유학시절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의 집무실 벽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수시로 세계 각국 일들을 즉각 대통령에 보고 처리하기 위해 4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게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무슨 색이냐는 나의 질문에 보여줄 수 없다며 사활적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 매우 중대한 국익(very important national interest), 중대한 국익(important national interest) 그리고 국익 관심(national interest)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영국의 수상을 두 번이나 역임한 팔마스톤(Viscount Palmerston)경이 일찍이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라고 했지만, 지정학적으로 일본·중국·러시아의 침략야욕 틈바구니에서 한미동맹 결성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며 위대한 업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우선 복원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한미정상은 한미동맹을 미영동맹처럼 사활적 국익관계로 격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북핵 위협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고, 중국 시진핑의 대국굴기(大國屈起) 중화주의에 대항하는 견제세력으로 한국이 명실공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중시전략의 핵심축(linchpin)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미정상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우월성 정립으로 무질서해진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트럼프는 빈부격차 개선, 하위층 37% 소득상승, 완전고용 실현, 35세 이하 젊은 층 순자산 13% 증가 등 미국경제가 좋아지고 시진핑의 패권도전에 강력히 대처하여 성과도 얻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Covid-19)사태로 재선에 실패했다. 품격없는 언행으로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 핵협정 파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

퇴, 인종차별적 발언,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NATO회원국들과 방위분담금 이견, 독일주둔미군 감축 등 자유세계를 분열시켰다. 미국 우선주의로 세계지도자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미 외교협회장 리처드 아스(Richard Haass)의 지적대로 무질서한 세상(A World in Disarray)을 만들었다. 이제 혼돈된 세계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약화된 자유민주주의체제 우월성을 다시 정당화 하여야 한다. 신흥 강대국 중국의 오만행태와 최빈국 북한의 핵(核)공급이 제지되어야 한다. 시진핑과 김정은도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규칙과 국제적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따르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량전염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주도의 파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영향력이 줄었다라도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리더(Leader)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신 냉전(neo-cold war)국제체제에서 한국도 적극 참여하는 민주국가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체제 확립으로 세계적 분열을 단합시키고 자유와 행복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지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원한다.//

정부 차원의 우주안보 비전 선포해야

안재봉 (예 준장, 2사 5기,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7월 발사된 군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11월 9일 우리 군이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때마침 11월 10일 국회국방위 여야의원이 공동 주관한 국가우주발전세미나와 11월 23일 국방부와 국방대학이 공동 주관한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력 발전에 관한 담론이 일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미사일우주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고, 미래 우주작전의 중요성에 발맞춰 국방우주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군은 발 빠르게 미사일우주정책팀,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각각 신설했다. 공군은 이미 걸프전 교훈을 반영해 1998년 우주전담부서를 전투발전단에 신설했고, 이후 지속적 발전을 통해 지금은 우주처와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공군작전사령부에 우주감시통제대를 신설했고, 공군창군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등을 운용한다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퀀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편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우주군(부대)을 창설하고, 그에 걸맞은 우주력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12월 우주군을 창설했고, 프랑스는 2019년 9월 우주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일본은 2020년 5월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고 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통신중계용 초소형위성군 등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우주산업의 특성상 국방우주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에 합당한 정책과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자위권 차원의 우주안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예산 확보, 제도 발전 등 우주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를 격상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고 있어 군사위성, 군사용 우주발사체, 각종 우주 무기의 개발까지의 과정을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으로 격상해 국방우주개발은 국방부 장관이, 민간우주개발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관해야 한다.

셋째, 국방우주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3군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우주작전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필요한 육·해·공군의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넷째,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를 지향해야 한다. 우주개발을 위한 민·관·군,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유기적 협업과 공조 그리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 참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우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한 국가의 국력, 국가위상, 경제력, 국가번영의 척도가 된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이 우주안보 비전 선포를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진짜 상남자의 탄생, 나도 열광한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본회 정책자문위원)



3개월여전 미국 플로리다주 키스제도에서 발생한 일이다. 관광 온 부부가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3m짜리 거대한 황소상어가 나타났다. 상어는 보트 가장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을 덮쳐 바다로 끌고 들어갔다. 황소상어는 무시무시한 식인 상어다. 그 순간 바다 위에는 핏물이 번졌다. 이 공포의 순간에 아내는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남편을 구해냈다. 상어에 여러곳을 물린 남편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상이었다. 심지어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망설임 없이 남편을 구조해 큰 화제가 됐다.

이 뉴스를 아내와 함께 보다가 한마디했다. “역시 인명제 ‘처(妻)구면.” 그러자 아내가 대꾸한다. “아내가 상어한테 끌려가면 바다에 뛰어들어 구출할 남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확실히 세상이 달라졌다.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넘치는데 남자들은 점점 유약해지는 것 같다. 청춘남녀를 봐도 여성들이 더 당당해 보인다. 젊어서 아내에게 큰소리 치던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대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산다. 돌이켜보니 나도 어느새 사나이 기질이 많이 사라진 듯하다. 젊었을 때는 나도 이런 소리 하며 살았다. “오빠만 믿어. 한밤중에 맹수가 나타나면 돌멩이든, 몽둥이든, 맨주먹이든 당신은 내가 지킨다.” 얼마 전 저녁식사 후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 아내가 이 말을 떠올렸다.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떨어졌는데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뜯어 먹히는 동안 당신은 도망가면 되잖아. 나 아직 75kg 나가는 남자야.”

<슈퍼맨>이란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슈퍼맨’이 사라진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람들이 당당하고 멋진 상남자를 찾는 이유도 우리 사회에 용기 있고, 매너 좋고, 정의감 넘치는 멋진 남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닐까.

지나해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이 KBS를 통해 방송된 가수 나훈아의 공연에 열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칠 대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을 확실하게 충전시킨 역사적 공연이었다. 많은 사람을 열광시킨 것은 가황답게 노래를 정말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나훈아 신드롬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권력자들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소신발언을 하고, 당당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 열광했다. ‘일상생활에 쫓겨 위축되고 권력 앞에서 비굴해진 남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않는 진짜 사나이의 모습에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닐까.

70세가 넘는 나이에 인생철학이 깃든 신곡을 선보이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무대를 휘젓는 모습과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매는 힘이 넘치는 사나이의 모습이었다. 모두 철저한 자기관리의 소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매력적인 시니어가 많은 사회다.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면 시든 꽃처럼 금방 무너지는 선배들을 보며 좌절했던 기성세대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당당함과 매력이 넘치는 시니어의 모델을 보며 열광했다.

이번 나훈아의 추석 명절 공연에서 화제가 됐던 노래와 말이 여러개 있다. 그중에 내가 꼽은 최고는 노래 ‘테스 형’이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해 이 시대, 이 상황을 절규하듯 노래하는 ‘테스 형’은 내 가슴을 두드린다.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를 소환하는 그의 안목이 놀랍고도 놀랍다. 대한민국 트롯 역사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트롯의 품격과 내공이 완전히 달라졌다.

내가 뽑은 가황 나훈아의 최고 명언은 바로 이거다.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따로 없다. “여러분, 세월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 끌고 갑시다.”

코로나 19로 찌든 2020년, 나는 대한민국 상남자의 탄생을 보며 그저 감동하고 말았다.//

새로운 의욕이 필요하다. 너무 지나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눈높이의 의욕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요즘은 어수선한 세상 탓일까? 유독 ‘나(自我)’라는 존재가 궁급해지는 시점이다.

나는 어떤 인간(人間)이며,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해 아침이면 나는 늘 그래왔듯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지를 고민한다. 재물, 명예? 그리고 내 풍수에 맞는 문장을 떠올렸다.

“작은 풀이여, 당신의 발걸음은 작지만 당신은 발아래에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시구(詩句)다. 이 시구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근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아름다운 시구는 우리가 비록 유약한 풀(草)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배후에 큰 대지와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열반경’에서 “마치 소금이나 꿀이 어디에 섞이더라도 본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떤 번뇌에 섞이더라도 밝은 자신의 성품, 즉 자성은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연말에 시국(時局)도 어수선하고 우울한 기분에, 바람이나 쏘일 겸, 월남참전 전우이자 후배이기도 한 ‘법안 법사’가 있는 공주의 ‘사찰(寺刹)’을 찾은 적이 있다. 때마침 법사님이 절에 계셔서 뵈 수가 있었다. 곡자를 나누는 중, 우연히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다. 푸른 달밤에 당나귀 한 마리가 등에 가득 짐을 진 채 서있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다시 보니 그 당나귀가 등에 가득 지고 있는 것은 꽃무더기였다. 당나귀는 노랗고 붉은 꽃을 가득 지고 있었다. 법사가 내 등 뒤에서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지고 있지만 당나귀는 그것을 꽃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나귀가 딛고 있는 땅 좀 봐요. 처음에는 벼랑 끝이었는데 ‘화가’가 나중에 거기에다 활짝 핀 들꽃들을 더 그려 넣어 둔덕을 만들었거든요.” 불자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좋아했다고 말한다. 스스로 진 불행과 고통을 꽃집이라고 바꿔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그날 법사님을 뵈고 나오면서 나도 꽃집을 가득 진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자신이 진 무거운 짐을 꽃 집이라 생각하는 의젓한 당나귀 한 마리를, 아직은 곳곳에서 찬바람이 새매처럼 매섭게 가슴 속 깊이 스며들며 불어온다.

해가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두꺼운 외투를 더욱 여했다. 코로나 19여파로 마음까지도 차가운 것 같다. 무엇이 그리 바쁘지 먼 산에 오색단풍이 든 것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벌써 한 해가 바뀌다니, 계절이 인심을 재촉한다.

올 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되면서 새해 해맞이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또 높은 산봉우리를 오른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일출의 장관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바다를 타고,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붉은 빛을 맞이한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변과 골짜기와 들판과 마을에 쏟아지는 그 빛의 환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물들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심도 빛으로 채워 넉넉하게 하고, 또 빛의 언어를 사용하고, 빛의 표정을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게 물들여진 그 빛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눠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눠줘도 줄지 않고 넘치는 게 빛이다. 햇불의 불(火)을 다른 이에게 옮겨줘도 내 햇불의 ‘불’은 줄어 들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단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얼마 전 만난 ‘고승(高僧)’이 내게 한 말이 떠오른다. “목사님 목은하니, 새해니 구분하지 마세요. 겨울 가고 봄 오니 해바뀐 듯하지만,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가 바뀌었다고 저 하늘이 달라졌나요?” 하루와 열흘, 그리고 한 달과 ‘절기’를 따지며, 사는 나 같은 중생은 이 시간이 물처럼 아주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씬 없이 흘러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할 뿐이다.

단지 ‘여기에 있을 뿐’이라면, 그리고 흘러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인생이라면, 굳이 세상에 발맞춰 갈 필요 있겠는가? 사는 일이 욕심 부린다고 어디 뜻대로 살아지나. 세상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내가 놓치고 간 것을 남은이 들이 뒤에서 거두고 추슬러 주는 일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리... 여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천천히 가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불안해하지도 말자.

새해를 맞이 했지만 왠지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우울하다. 이맘때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가 이성선 시인의 시(詩) ‘새해의 기도’가 아닌가 싶다. 물론 한 시인이 새해에 바라는 것을 쓴 것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시’에서 처럼 조바심으로 너무 서두르는 일 없이, 맑은 시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고, 조용하게 내면을 응시하면서, 비상도 꿈꾸며, 영원에 대해 생각하는 너른 안목으로 살았으면 싶다.

자신이 어디로 가시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결국 자연이라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전우들이여,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이를 먹는다 것은 모든 것이 단순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실을 향해 시들어갈 기회다. 나이 들음은 축복이다. 단지 ‘여기에 있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전우가 되자.

“또 하루가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김광석 가수가 부른 이 노래를 조용히 불러본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안호원 (목사, 전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칼럼니스트)



32살에 요절한 가수 김광석은 노래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부르지도 않은 새해가 어김없이 밝아왔다.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 늘 이 맘 때쯤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 이겠지만,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뜯어내면서 밀려오는 감정은 빠른 시간에 대한 놀라움과 아쉬움일 것이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소중함과 후회가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도 한다.

나이가 든 탓일까. 시간은 항상 알 수 없

는 종점을 향해가는 것 처럼 느껴진다. 종말(終末)에 대한 막연함은 어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선언한 대로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막상 그런 느낌이 갑자기 눈앞의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눈이 내린 하얀 설원(雪原)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느낌이다. 시간이라는 미지의 설원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을 것이다. 그 발자국은 나의 족적이 되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은 설레는 일이며,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때에는

승화된 이야기

한인애 (김병환 전 황성회장 가족)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다. 대학입시 한파가 시작된 것 같다. 대학이 지상의 최대목표인 입시 철이 되면 수험생과 부모들은 초조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날씨가 더워진다.

몇 해 전의 나도 자식을 보다 잘 살게 하려면 반드시 최고의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강제로 재수를 시켰다. 밤낮으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한 아들의 삶에는 습진이 생기고 다시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날이 왔다. 그 당시 수원에 살던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들의 원서를 내려고 집을 나섰다. 매서운 겨울의 한기가 초조함으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원서가 열기라도 하는 양 꼭 껴안고 버스정류장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보니 보도에 “딱! 딱!” 부딪치는 구두뒤축 소리가 무척 거슬렸다.

나는 자식을 위한다는 욕심으로 아들을 S대학에 지원시켰다 낙방하고 한 해 더 고생시키는 어미였다. 그러기에 모든 신(神)이며 바위와 나무를 보고도 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죄인처럼 생활했다. 아들의 재수 뒷바라지에만 전념하며 구두를 신고 나서는 일도 삼가던 터라 뒤축이 다 닳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잊고 있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행 앞의 수선소에 구두를 맡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은행으로 가서야 현금 인출 카드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출금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지갑엔 동전 몇 개뿐이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야 했다. 자식 일에는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이 어미의 마음인지 일이 꼬이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얼굴이 창백해져 수선소로 돌아오자 신기료장수 노인이 연

유를 물었다. 철순이 넘어 보이고 작은 체구의 초췌한 그에게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구두수선비가 모자라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정을 듣고 난 그는 원서접수비가 얼마냐고 물으며 당신 수중(手中)의 돈을 다 털어 내게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처음 본 노인의 호의에 무척 놀랐고 극구 사양했다. 그리고 그 액수는 내게 필요한 금액의 반도 안 되었다. 그때 내게 필요한 금액은 구두 한 켤레 수선에 천 원을 받는 그가 백 켤레도 넘게 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붙들고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했고 할머니 한 분이 금방 달려와 그에게 돈을 내밀었다. 그는 그렇게 금액을 채워 내 손에 꼭 쥐어주며 어서 서울에 다녀오라 했다.

나는 그날까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남에게 도움을 받으리라는 기대도 없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왔는데 자식의 일로 낯선 그에게 그런 도움을 받으니 닫혔던 마음이 풀리면서 초라한 구두 수선소가 정다운 장소로 여겨졌다. 불길하던 예감도 사라지고 따뜻해진 마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자 수험생인 아들이 그분을 보고 싶다하여 아들과 나는 빌린 돈과 작은 선물을 들

고 수선소로 갔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아이에게 그는 “큰 그릇이 될 청년이구먼. 틀림없이 합격할 거야.”하고 덕담을 해주었다.

그 뒤부터 나는 종종 수선소에 들러 그의 말벗이 되어 드렸다. 그는 수선소의 좁은 공간에 자리를 마련해 나를 앉게 하고 작은 난로의 온도를 높였다. 그리고 내 낡은 구두를 모두 가져오게 하여 무료로 수선해주며 눈길에 미끄러지지 말고 잘 다니라고 아버지처럼 일러주었다. 그 분은 구두수선을 하면서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곤 했다. 고통스럽던 지난날들을 이야기하며 인간에 의해 낡고 찌든 구두를 새신처럼 변화시키는 그는 아픔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을 수선하여 승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과도 헤어졌다. 배신감과 상실감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버리려다 한쪽 다리를 잃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절망과 분노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차피 빈손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저승길을 닦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신발을 수선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아낌없이

베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상처와 절망을 아련한 그리움처럼 이야기하는 그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합격자 발표가 났다. 아들의 합격이 그의 덕인 것 같아 그 소식을 전하려고 수선소로 뛰어갔다. 그런데 3일 전에도 그의 이야기와 난로가 따스하던 그곳에는 차가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기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선소는 침묵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물쇠가 벗겨져 있었으나 낯선 이가 구두 수선을 하고 있었다. 그가 수선소를 인수했는데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다.

어디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의 거처를 알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서는 눈앞에 의족(義足)을 절뚝거리던 그의 초라한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해마다 추운 입시 철이 되면 그 노인이 더욱 생각난다. 그래서 구두 수선소 앞을 지날 때면 습관처럼 기웃거리려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승화된 이야기와 인정은 소박한 질화로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 있다. 다시는 뵈 수 없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다운 사람이었기에...//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바이칼, 그대는 우리민족의 시원이여!

지구상 가장 깊고 깊은
오지에 묻혀서
칼바람, 강풍한설을 모질게 견뎌온
그대의 이름은 바이칼!
태고의 신비와 경이를 간직한채
삼천만년의 세월을 고이 품으면서
흡스굴*과 더불어 자매로 태어난 그대,
행성의 우주조화를 모조리 다스리고 있는
신비의 호수여!!!

오늘도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억겁의 세월속에서
얼었다 다시 녹고
녹았다 다시 얼기를 반복하며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매력덩어리
살아있는 대자연, 그대는 자랑스런 바이칼!

마그마 꿈틀거리는 지구의 소리가 들리고
굉음은 청명한 대기를 박차고 치솟아
허공을 향해 구멍을 내고 있다.
새벽에도 초승달 처럼 일그러진 호수에
별빛이 은빛 여명으로 쏟아지고 나면
어느새 그 자리엔
햇님의 열정적 사랑이 뜨겁게 펼쳐 지는데,
하루종일 수정같이 푸른빛을 발하는
그대는 아직
날 선 청춘이다.

그대의 가슴팍이 워낙 넓고 깊어서
우주의 창으로 내려다보면
유독 새파랗게 보이는
'시베리아의 푸른 눈'이 되어 있네.
그대가 비장해 온 순결의 구조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얼마나 오랫동안 인고의 도를 닦았을까!
그 안보이던 기적의 비밀까지 환히 드러낸다.

삼백 서른 다섯 번의 들숨이
온갖 세상의 번민과 오욕과 고뇌와 악행을
쭈욱 들이마셨다가 순화한 다음
오직 한 번의 날숨으로
양가라강에 다 뱉어 내고는
오늘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잠을 잔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비우며
다시 들숨 채우는 시간을 맞이한다.
온갖 오염과 교란을 자정하는
신비의 처방전은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다.
맑은 기운, 신성한 것들이 가득해
신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곳,
신들이 사는 영험함속에서 매일
땀을 흘리며 목은 것들을 토해내곤 한다.
세상의 모든 소망과 바람을 가슴에 다 품어주는
그대는 슬프고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의 종착지로서
오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엮드려 있구나.

바이칼, 그대는 샤머니즘의 고향이요,
알타이 역사 문화의 보고이자,
무한한 상상력을 풀어놓어주는
신화의 땅
여기저기 신목이 늘어서고
숫대와 성황당이 보일때마다
빨강고 파랑고 하얗고 노랑고 초록의
오색형검이 치렁치렁 휘날리는데
〈선녀와 나뭇꾼〉의 설화와
〈아바이게세르〉** 신화는
우리의 단군신화와
그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녕 바이칼 그대는
우리 민족의 시원이로구나.

주) * 흡스굴 호수 : 몽골 북쪽 러시아 접경 시베리아 인근에 위치하는 호수로서 규모는 제주도의 1.5배 정도이고 몽골에서는 '어머니의 바다'로 불리고 있음. 바이칼호수와 함께 자매호수로 불리기도 함.
주) ** 아바이게세르 신화: '아바이'는 함경도 방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선조나 아저씨 혹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높임말.
'게세르'는 바이칼호수 주변 몽골계 부리아트인들의 신화로서 주인공 '게세르'가 인간들을 위해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한반도의 각종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천손강림' '홍익인간'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신기하게도 게세르 신화는 단군신화나 해모수신화, 주몽신화와도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면면히 생명력을 이어온 샤머니즘 전통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Stille Nacht Heilige Nacht)

전대길 (병 176기, ㈜동양 EMS 대표이사,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1818년 12월 24일 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오베른도르프(Oberndorf) 마을(주민 3,000명)의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Carol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현재 ‘성 니콜라우스 성당’은 ‘고요한 밤 성당(Silent Night Chapel)’으로 불린다. 그래서 이 노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815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1817년 오베른도르프 성당에 부임한 ‘요셉 모어(Joseph Mohr) 1792~1848’ 신부(당시 26세)가 X-mas 행사 직전에 오르간이 고장 났음을 알았다. 캐럴이 없는 X-mas 미사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 난 그는 새로운 캐럴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자신의 서재에서 아기 탄생을 축하해 주었던 한 가족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장면을 연상하면서 <고요한 밤(Stille Nacht), 거룩한 밤(Heilige Nacht)> 노랫말을 써 내려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노랫말을 완성한 ‘요셉 모어(Joseph Mohr)’는 곡을 불이려고 이웃마을 초등학교 교사(당시 31세)인 ‘프란츠 그루버(Franz Xaver Gruber/1787~1863)’를 찾아가서 작곡을 부탁했다. 그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작곡을 잘하는 오르간 연주자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점점 유명해졌다.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노래가 탄생한 지 26년 후인 1844년, 베를린 왕실 성가대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의 어전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합창했다.

프리드리히 임금은 노래를 듣고 감격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렸다. 들던 대로 아름다운 곡에, 아름다운 가사였다. 프리드리히 임금은 노래를 만든 사람을 표창하고 싶어서 즉시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관리가 산골 마을로 파견되었다.

수소문 끝에 작곡자인 그루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작사가인 모어 신부는 없었다. 이미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오늘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아니든 간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전기가 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러더스’에서 독일군 병사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성탄 전야에 벨기에 이프르(Ypres)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한 독일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자 영국 병사들이 환호하며 독일군 장교와 영국군 하사가 악수하며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정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캐럴음반을 처음 낸 이는 윤심덕이다. 1926년 10월 2곡을 취입했다. 1934년, 12월 가수 ‘요한’을 거쳐 1935년 8월에는 ‘고향생각’, ‘희망의 나라로’를 작곡한 현제명이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음반(콜롬비아 레코드)이 출시되었다.

1941년엔 클래식음악가 현제명, 김현준, 김자경, 김수정이 혼성4중창으로 부른 ‘첫 번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음반(빅터 레코드)이 나왔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캐럴이 본격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1981년부터 2019년까지 38번의 크리스마스 가운데 서울에 눈이 온 해는 모두 12번으로, ‘하이트 크리스마스’ 비율이 31.6%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될 것 같다.

세월이 흘러 ‘요셉 모어’의 이름은 잊혀지고, 음악 활동을 계속했던 ‘그루버’가 작곡을 했거나 혹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의 이름이 작곡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요셉 모어’의 자필 악보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루버’와 ‘모어’의 공동작품임이 확인되었다. 2011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UNESCO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과장마의 침투로 물바다 된 반도를 복구하는데 기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웃과 이웃이 경계하고, 때로는 서로가 불신하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지난 세월 민심은 더욱 흥흥해져 갔다.

지구촌의 재앙이 누구의 탓이런가.

우리가 만든 자연 파괴의 결과물이 질병을 유발하고,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드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두 네 탓이라고만 한다.

오늘날 재앙의 원인은 자연을 파괴하고,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 내는 각종 공해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현존의 세상은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네 탓 속에 병들어 가고, 인류는 자멸을 예고한다.

철학은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들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양 철학의 대부이자 상징이기도 한 하이데거(Heidegger, Martin)의 존재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데거는 독일의 철학자로 ‘존재와 시간’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오늘날과 같은 기술시대는 존재 망각이 극단에 이른 시기’라고 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존재 망각들 속에 지금 지구촌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의 철학 속에 등장하는 ‘있다’ ‘없다’라

는 이론보다 실존주의적인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 인간은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미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미래를 위하여 1년의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림을 익혔다.

젓빛 하늘을 열고 눈발이 내린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발은 길을 지우고, 숲을 지우고, 세상 보이는 것은 모두 지운다. 얼마나 위대한 신의 붓질인가.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면 심지어 세속에 찌든 마음까지 지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제 그 염원을 키워 인류의 역사를 바꾸려는 코로나19를 지워달라고 보이지 않는 신께 애원하고 싶다.

하얀 캠퍼스 위에 새로 그려갈 내일이란 그림을 상상하며 우리는 희망이라는 낱말을 만든다. 유토피아(Utopia)를 꿈꾸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판도라 마지막 상자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오로지 시간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다.

희망이라는 낱말을 지운 채 저무는 2020년을 돌아보면, 멈춰선 암울한 시간의 표상 위에 버릴 수 없는 삶의 굴레를 돌리며 우리는 어렵게 지나왔다.

이제 밝아오는 2021년의 새해다.

동해의 푸름 물결에 머리를 감고 떠오를 희망의 해를 기다린다.

지구촌 모두에게 무병장수의 기원을 담아 동녘엔 새로운 해가 뜰 것이다.//

작전 가능 전투 조종사

김경수 (대위(진), 공군10전투비행단)



입문-기본-고등 과정으로 이어지는 공군의 비행 훈련을 마치게 되면 전투 조종사로서 자격을 부여받는다.

추가적으로 공중전투와 전술을 위해 작전 가능 훈련(CRT·Combat Readiness Training) 과정을 수료했을 때 비로소 전투비행대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공군10전투비행단의 일원이 되었다.

작전 가능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았다. 항공기 특성부터 사격, 공중전투, 안전 대책 등 새로운 항공기로 무장을 운용하면서 비행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을 습득해야 하는 비행교육의 특성상 매 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 여러 도움 덕분에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떨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입과를 했던 지난 2월부터 오늘의 날까지를 돌아보고자 한다.

CRT 과정은 우선 선배 교관 조종사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제식으로 이어지는 비행교육은 경험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비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같이 비행하면서 비행 조종이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디브리핑에서 수정과 보완점을 배운다. 소통이 없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피교육자이자 후배의 입장에서 항상 어려울 수 있지만 훌륭한 선배들이 끌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상 지원 요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항공기 정비부터 비행대의 지원 요원들까지 수많은 지상 인원이 비행 하나만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비행 훈련을 가능하게 지원해주어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함께 한 동기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연구량과 강도 높은 훈련량으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온다. 그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주변의 동기들이다. 묵묵히 앞에서 끌어주는 동기, 힘들 때마다 용기와 사명감을 외치던 동기, 배워온 비행을 어떻게라도 전파하려는 동기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각자의 비행대대로 배치되어 영공 방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비상대기 임무를 통해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진정된 전투 조종사가 된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작이다. 더 공부하고 더 배워서 기량을 올리고 언젠가는 리더로서 후배들을 이끌기도 해야 한다. CRT 과정에서 배운 많은 부분을 바탕으로 비행대대에서도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전투기 조종사의 임무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힘에 부치고 역경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CRT 과정의 초심과 더불어 비행단에서의 실천적인 비행훈련을 통해 주어진 영공방위 임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0.12.1.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동녘엔 해가 뜬다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반도의 산하가 붉게 물들었던 가을빛이 저물면 겨울로 가는 긴긴밤은 싸늘히 어둠으로 덮이고, 하늘의 별들도 차가운 눈발을 준비

하며 떨고 있다.

이렇게 긴 터널의 시린 겨울밤을 맞으며, 어디쯤일까. 관제탑의 불빛도 없이 꿈의 나래를 펴고 날아올 꿈의 종이비행기를 기다

린다.

우리는 불시착할 활주로도 없이 날아올 그 꿈의 편린(片鱗)들을 기다리며 삶의 길 위에 놓인 오늘이란 또 하나의 징검돌을 건넌다.

무한의 세월 같은 지난 1년, 코로나19의 창궐로 마스크 속에 미소를 저당 잡히고 암울한 시절을 살아왔던 우리는 첫 계절의 길목을 수놓던 흐드러진 벚꽃 잔치도 잇는 채 코로나19를 맞았고, 창궐하는 코로나 전염병 이외에도 해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

※ 본지에 기고된 글들은 본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